

116.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미’(美)의 본질에 대해 고대 로마제국의 황제이자 사상가인 마르쿠스 아우렐 리우스는 “어떻게든 아름다운 모든 것은 그 안에 미의 원천이 있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인 헬렌 켈러는 “미는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라고 말했으며,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주베르는 “아름다운 것,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미이다.”라고 말했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이 지닌 특성의 아름다움이다.